

- 코카콜라(Coca-Cola), 9월부터 500ml 이하 전 제품에 100%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출시
- 6월 30일 코카콜라 영국은 코카콜라 유로 퍼시픽 파트너(Coca-Cola Euro Pacific Partners, CCEP)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9월부터 500ml 이하의 모든 병을 100%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함
- 영국 CCEP 스테판 무어하우스(Stephen Moorhouse) 지사장은 “2025년까지 자사의 모든 플라스틱 병과 캔 용기를 100% 재활용하여 선순환 경제의 낭비 없는 세상 구현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겠다”라고 표명함
- 영국 환경부 장관인 레베카 포우(Rebecca Pow) 역시 코카콜라가 영국에서 100%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휴대 용기를 제작하려는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임
- 플라스틱 재사용 및 재활용 순환 경제 시스템의 핵심
- 영국 플라스틱 협약(The UK Plastics Pact)의 창립 멤버인 코카콜라는 디자인의 경계를 계속 확장하고 고객과 협력하여 플라스틱병의 100%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색 중임
- 코카콜라는 내년 7월부터 영국 전역에서 업계 파트너들과 함께 자원순환 폐쇄형(순환형) 처리 솔루션을 장려하고,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해 '예금 반환 계획(Deposit Return Scheme, DRS)'을 실시할 예정임
- WRAP의 전략적 기술 관리자인 헬렌 버드(Helen Bird)는 “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병을 제작하면 에너지가 75% 절약되고, 소각 시 화석 연료 배출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용기 재활용 및 포장은 순환 경제